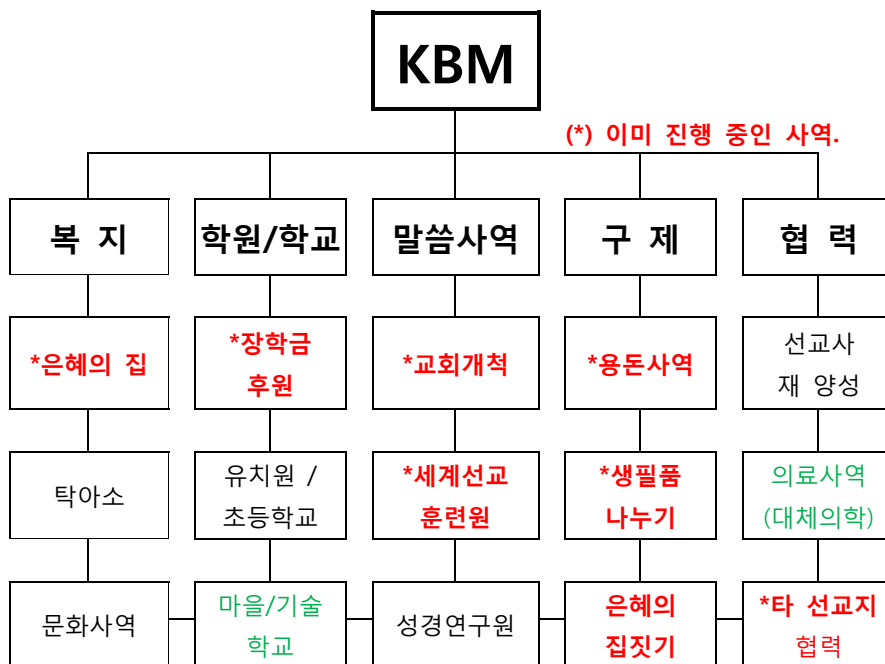


KBM (Korean Brazil Mission)

한국인 브라질 선교회



저희 선교회입니다.

그 동안 선임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교회를 세 개를 개척하여 현지인 노회로 이양하셨으며, 프리셉트 쌍 파울로 지부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고, 2006년부터는 팀으로 함께 현지인 세계선교훈련원을 진행해 오다가 2007년 고아원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 건물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제한이 되어 고아원 사역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적인 고아원을 접으면서 이제까지 거쳐간 아이들과 미혼모, 청소년, 청년 그리고 주위에 돌봄과 자가성장을 위한 도전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하는 성품, 교육, 기술 습득의 현장인 마을/기술학교 사역이 주 사역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역

은혜의 집: 주 사역이었던 고아원.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가치관과 삶을 통해 영향력과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는 어둡고 소외된 이들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에게 자녀로서의 신분을 찾을 수 있도록, 나아가 저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사역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1) 하나님을 알게 하며 2) 가정의 사랑을 찾아주고, 3)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4) 더불어 사는 것을 깨닫게 하며, 5)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부모나 살던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은 그 영향력과의 싸움이며 아이들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으로 오게 되는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열악하여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마약복용 혹은 알콜 중독으로 아이들을 키울 능력을 상실했거나 심한 구타까지 서슴치 않는 부모, 딸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성 노리개로 대고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모, 근친상간의 성 학대를 당해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능력이 없는 가정에서 며칠간 끼니를 거르거나 육체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등입니다. 이 아이들은 꿈이나 희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죽여 가고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개원하여 그 동안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평균 1년의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하며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동안 뒤쳐진 교육의 향상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한 꿈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처음 이곳으로 오게 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약이나 근친상간 등의 문제는 좀처럼 치유가 쉽지 않아 아이들을 친척이나 제3의 가정으로 입양 되기도 합니다.

저희 기관에 맡겨진 후 2년이 지나면 부모는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며 그 아이들은 기관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 저희가 감당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1) 졸업장 2) 운전면허증 3) 한 가지 이상의 기술**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역의 대상 연령층은 0세에서 18세까지 입니다. 또한 저희 기관을 거쳐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부모들과 함께 기도 해 왔으며, 지속적인 접촉과 교육의 장을 통해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보살핌과 제자훈련을 **마을/기술 학교**를 통해 이루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워지기 위해 가정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아원 사역을 통해 보았으며, 가정을 세우는 사역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각 가정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와 모임의 시간을 늘려 갈 것 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앙교육과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충격과 도전 그리고 발전의 시간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뤄 온 사역들:

- 1) 장학금 후원
- 2) 물질 사용 훈련: 1/10-십일조, 1/10-이웃돕기(걸인선교 시작 됨), 1/10-감사
- 3) 은혜의 집 짓기(복음으로 보금자리 짓기): 3채
- 4) 생필품 나누기: 15가정 섬김.
- 5) 걸인선교: 월, 수요일 저녁 8시. 예배 후 급식
- 6) 소년원 전도 집회
- 7) 학교 전도 집회: 주중 정규 수업시간(하루 종일)
- 8) 마을 전도 집회: 고아원을 거쳐 간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
- 9) 각 가정 심방: 고아원을 거쳐 간 아이들 가정 우선. 매달 한, 두 번.

이어지는 사역:

1) 마을(방과후 학교)/기술 학교: 고아원을 거쳐간 아이들과 미혼모 그리고 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껌이나 사탕을 팔려고 기차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을 모아 각자의 재능을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도와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사역의 대상들에게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기술학교는 삶의 의지가 있으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자들을 위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술과 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 복음을 통한 성품교실
- 방과 후 교실
- 태권도 교실
- 목공건축교실
- IT교실(프로그램/기계전자조립)
- 드론교실(조립 및 조작)
- 대체의학(침/뜸/테이핑/마사지를 통한 재활 및 통증치료)사역..

2) 교육사역 - 유치원/초등학교; 정규학교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 청소년 문화 공간사역

3) 탁아소

4) 장애인 사역: 고아원 당시 10명의 장애아들이 있었음. 때가 되면 장애인 케어 센터도 기도하고 있음.

5) 훈련원; 다음의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5-1) 세계선교훈련원; 브라질도 이제는 타민족을 향한 선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타민족 이해와 적응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통한 복음제시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속에 스며있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에(도시선교의 중요성) 선교사는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생활화를 위한 말씀훈련을 모든 훈련의 중심에 둡니다.

5-2) 성경연구원;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태동과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세계선교 훈련원이나 선교사초청 및 재 양성 사역과 병행이 되어 함께 이뤄 나갈 사역입니다. 성경 전권을 연구하게 됨.

5-3) 선교사 초청 및 재 양성; 선교사 초청 및 언어와 문화 교육과 더불어 사역 중 영적 재충전의 시간과 여건을 제공하여 선교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게 됩니다..

6) 타 선교지 후원; 선교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고 나누는 사역으로..

선교지마다 잉여 물건, 물질, 인적자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서로 공급하다 보면 언젠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7) 은혜의 동산; 20채 집이 위치 한 동산으로 한국과의 MOU를 통하여 농업, 목축업, 목공 건축 등 각 가정이 3~5년 계약으로 살며 기술을 배워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를 사역)

사역이 시작되었고 사역이 점점 세분화 되어 가며 연결 된 사역들이 이어지기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함께 할 기관과 교회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유충선, 최인숙 선교사

감사합니다.....